

사상체질별 關格 치료 약물인 巴豆, 甘遂, 瓜蒂의 문헌 고찰

주종천 · 오승윤 · 이시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한국전통의학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Bibliographical Study on Semen Tiglii, Radix Euphorbiae Kansui and Pediculus Melo with Effects Improving Gwangyuk, the Chest Discomfort with Constipation, Dysuria and Nausea,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o Jong-Cheon, Oh Seung-Yun, Lee Si-Woo*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and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f Wonkwang Univ.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s

I investigated the effects and mechanisms of Semen Tiglii(ST, 巴豆), Radix Euphorbiae Kansui(REK, 甘遂) and Pediculus Melo(PM, 瓜蒂) in the view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I analyzed the literature about oriental medicine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lated to herbal Medicine. The contents analyzed were efficacy, efficacious disease, dosage, usage, side effect, toxicity.

3. Results

The first, similarities of ST, REK and PM are improving Gwangyuk, the Chest Discomfort with Constipation, Dysuria and Nausea, toxic, used in urgency, administered by itself and used shaped powder.

The second, ST and REK used the diseases related water and food metabolism in Soumin and Soyangin. PM used the diseases related Qi and fluid metabolism in Taeumin.

The third, diarrhea caused by ST and REK is symptom to retrieve the diseases related water and food metabolism. The vomiting caused by PM is symptom to retrieve the diseases related Qi and fluid metabolism.

4. Conclusions

The ST, REK and PM is good herbal medicine to retrieve the urgency symptom caused by the body unbalance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proper dosage is essential because of toxicity of drugs.

Key Words : Semen Tiglii, Radix Euphorbiae Kansui, Pediculus Melo, Sasang Constitution, Diarrhea, Vomiting

• 접수일 2008년 06월 30일; 승인일 2008년 07월 14일
• 교신저자 : 주종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42-1번지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63-270-1073 Fax : +82-63-270-1594
E-mail : jchoo@wku.ac.kr
• 이 논문은 200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I. 緒 論

『東醫壽世保元』新定方を 구성하는 약물 중 毒性을 가진 藥物은 少陰人의 半夏, 附子, 巴豆, 少陽人의 輕粉, 朱砂, 甘遂, 太陰人의 杏仁, 蟾蜍, 瓜蒂 등이 있다¹.

그 중에서 少陰人의 巴豆, 少陽人의 甘遂, 太음인의 瓜蒂는 關格을 치료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毒性이 있으며 關格을 치료한다는 것 외에 救急 상황에 응용한다는 점, 湯劑가 아닌 散劑의 형태로 투여된다는 점, 單味劑로 사용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2,3}.

현재까지 이들 약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약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파두에 관한 연구는 소음인 급성 마비성 장폐색 환자에게 巴豆霜을 약 3~6시간 간격으로 총 2.5粒을 투여하여 개선시킨 보고⁴, 毒性 관련 본초서적의 고찰을 통해 파두의 독성과 용법을 정리한 연구⁵, mouse에 대한 巴豆의 독성 실험⁶, 대동맥 혈관 수축에 대한 영향력 분석⁷ 등이 있었다. 瓜蒂는 구성성분인 cucurbitacin B와 isocucurbitacin B를 mouse의 간질환 모델에 투여한 연구⁸가 있었으나 한의학적 개념에 입각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학술지 검색에서 甘遂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의학 본초와 관련된 문헌 검색을 통해 세 약물의 사상의학적 效能, 主治症 등을 비교 정리하였다. 이에 일부 지견을 얻어 보고하게 되었다.

II. 研究方法

1. 연구 대상 문헌

四象醫學 發明 以前 文獻인 『神農本草經』 『湯液本草』 『傷寒論』 『東醫寶鑑』과 이제마의 저서인 『保健省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과 사상의학 임상 서적인 『普濟演說』 『東醫四象新編』을 검색하여 巴豆, 甘遂, 瓜蒂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 정리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2. 각 약물의 기본 정보¹

1) 巴豆

大戟科 常綠 喬木인 파두의 성숙한 종자로 원식물의 학명은 *Croton tiglium* L.이며, 생약명은 *Crotonis Fructus*이다. 異名은 『神農本草經』의 巴菽, 『雷公炮炙論』의 剛子, 『本草綱目』의 老陽子, 『嶺南採藥錄』의 雙眼龍 등이 있다.

2) 甘遂

大戟科 多年生 肉質 草本인 甘遂의 塊根으로 원식물의 학명은 *Euphorbia kansui* T.N. Liu et T.P. Wang이며, 생약명은 *Euphorbiae Kansui Radix*이다. 異名은 『神農本草經』의 主田, 『吳普本草』의 甘澤, 苦澤, 重澤 등이 있다.

3) 瓜蒂

葫蘆科(박과) 一年生 草質藤本인 참외의 익지 않은 열매의 꼭지로 학명은 *Cucumis melo* L.이며, 생약명은 *Melonis Calyx*이다. 異名은 『本草經集註』의 蛄瓜蒂, 『千金翼方』의 瓜丁, 『寶慶本草折衷』의 苦丁香 등이 있다.

III. 本 論

1. 四象醫學 發明 以前 文獻 검색

1) 『神農本草經』⁹

巴豆와 甘遂는 下藥으로, 과제는 中藥으로 분류하였다. 巴豆는 五臟六腑를 蕩滌하고 음식물이 정체된 消化機關을 운동시켜 水穀이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癥瘕, 積聚, 留飲, 水脹, 惡肉 등을 치료한다. 甘遂는 음식물이 정체된 消化機關을 운동시켜 水穀이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疝瘕, 腹滿, 浮腫, 留飲, 宿食, 積聚를 치료한다. 瓜蒂는 전신, 얼굴, 사지의 浮腫과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아 가슴에 머무른 것을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켜 치료한다¹⁾.

1) 巴豆 治傷寒 溫瘧 寒熱 破癥瘕 結聚堅積 留飲痰癖 大

2) 『湯液本草』¹⁰

巴豆는 胃中寒濕을 치료하는 藥으로서 通腸과 止泄의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積이나 堅을 치료한다. 사용법은 大小便을 통하게 하려면 皮, 心, 膜, 油를 없애고 生으로 사용하며, 積을 없애려면 炒한후 그을음을 없애고 紫黑色이 되게 하여 갈아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甘遂는 水結胸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通水, 行水의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瓜蒂에 대한 내용은 『神農本草經』과 동일하였다²⁾.

3) 『傷寒論』¹¹

巴豆가 사용된 처방은 三物白散 1개이며, 甘遂가 사용된 처방은 大陷胸湯과 十棗湯 2개이며, 瓜蒂는 사용되지 않았다.

三物白散은 寒實結胸에 사용하며 桔梗, 巴豆, 貝母로 구성되어 있다. 복용법은 체력이 건강한 사람은 半錢, 체력이 약한 사람은 半錢 이하를 복용하는데 흰 죽에 타서 복용한다. 복용 후 泄瀉가 없으면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먹고, 泄瀉가 과하면 차가운 죽을 한 그릇 먹는다고 하였다.

甘遂가 사용된 大陷胸湯은 大黃, 芒硝, 甘遂로 구성되며, 心下硬滿, 疼痛이 있는 結胸證에 사용하였다. 복용법은 大黃을 먼저 끓인 후 芒硝

를 넣고 다시 끓여서 마지막에 甘遂 가루를 타서 복용하며, 설사를 하면 이후 처방은 복용은 중지 하라고 하였다. 十棗湯은 芫花, 甘遂, 大棗로 구성된 처방으로 心下痞硬, 引脇下痛, 乾嘔, 短氣하는 結胸에 사용하였다³⁾.

4) 『東醫寶鑑』¹²

東醫寶鑑에서는 巴豆, 甘遂, 瓜蒂가 단독으로 서술된 경우만을 정리하였다.

巴豆와 甘遂는 「雜病篇 下門」에서 검색되며, 瓜蒂는 「內景篇 痰飲門」에 기술되어 있다. 巴豆는 胃 속에 몰린 寒邪를 없애고, 大小便이 잘 나가게 한다. 껍질을 버리고 기름을 뺀 다음 가루내서 丸이나 散에 넣어 쓴다고 하였다. 사친성에서 나며 햇것이 좋고 불에 볶제한 것이 좋다고 하였다. 巴豆 중에서 알이 잘고 대추씨처럼 생겼으며 양쪽 끝이 뾰족한 것은 江子라고 하는데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급히 大小便을 통하게 하려면 皮, 心, 膜을 제거하고 기름을 뺀 다음 생것으로 쓴다. 천천히 효과를 내게 하거나 堅, 積을 삭이려면 물을 갈아 부으면서 5번 삶아 연기가 나지 않고 빛이 검은 자줏빛이 될 때까지 볶아 가루내어 쓴다. 설사를 시키지만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도 있다. 巴豆에 중독되면 泄瀉, 嘔吐, 煩渴, 發熱이 나타나므로 급히 黃連, 黃栢, 梔子, 寒水石, 石膏, 葛根, 藍根, 砂糖 등을 달이거나 찌워서 汁을 복용하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찬물에 손을 담그라고 하였다.

甘遂는 積聚를 삭이고 大小便이 잘 나가게 한다. 가루내어 미음에 타서 먹거나 丸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였다. 十二種水疾을 瀉하고 面目浮腫, 心腹脹滿, 大小便이 잘 나가게 한다. 껍질이 붉고 살은 희며, 구슬을 쭉 켜 것 같고 옹골찬 것이 좋다. 2월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린다. 이 약은

腹水脹 蕩滌五臟六腑 開通閉塞 利水殺道 去惡肉 除鬼毒 蠱疰邪物 殺蟲 魚 生川谷 甘遂 治大腹疝瘕 腹滿 面目浮腫 留飲 宿食 破癥堅積 聚 利水 殺道 生川谷 瓜蒂 治大水身面四肢浮腫 下水 殺蟲毒 欬逆上氣 及食諸果不消 病在胸腹中 皆吐下之

2) 巴豆 ○<本草>云 …… 療女子月閉 爛胎 金瘡膿血不利 丈夫陰癰 殺斑猫毒 健脾胃開胃 ○<易老>云 斬關奪門之將 大宜詳悉不可輕用 ○<雷公>云 得火則良 若急治爲水殺道路之劑 去皮心膜油 生用 若緩治爲消堅磨積之劑 炒煙去 令紫黑 研用 可以通腸 可以止泄 世所不知也 仲景治百病客忤 備急圓主之 巴豆杏仁例 及加減寒熱佐使 五色并餘例 並見<元戎> ○<珍>云 去胃中寒濕

甘遂 ○<本草>云 …… 下五水 散膀胱留熱 皮中痞熱 氣堅滿 瓜蒂爲使 惡遠志 反甘草 ○液云 可以通水 而其氣直透達所結處 ○<衍義>云 此藥專於行水 攻決爲用 入藥須斟酌用之 ○<珍>云 若水結胸中 非此不能除 瓜蒂 ○<本草>云 …… 去鼻中息肉 療黃疸 鼻中出黃水 除偏頭疼有神 頭目有濕宜此 瓜蒂苦 以治胸中汗 與白虎同例 俱見如母條下 與麝香 細辛爲使 治久不聞香臭 仲景鈴方 瓜蒂一十四箇 丁香一箇 黍米四十九粒 爲末 含水噉一字 取下

3) 寒實結胸 無熱證者 與三物小白散 ○太陽病 脈浮而動數 頭痛發熱 微盜汗出 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短氣躁煩 心中懊憹 陽氣內陷 心下因硬 則爲結胸 大陷胸湯主之 若不結胸 但頭汗出 餘處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身必發黃 ○太陽中風 下利嘔逆 其人墊墊汗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者 十棗湯主之

물을 통하게 하며, 물이 문진 곳으로 바로 들어간다. 밀기울과 같이 볶아 쓴다. 甘遂에 중독되면 검정콩을 달여 즙을 내어 마신다고 하였다.

瓜蒂는 痰을 吐하게 하는데, 가슴에 담이 막혀서 까무러쳤을 때는 瓜蒂散을 써서 吐하게 해야 금방 깨어난다고 하였다. 瓜蒂는 苦丁香이라고도 하며, 흰 참외와 파란 참외 두 종류 중에서 파란 참외를 써야 한다. 음력 7월에 참외가 익어서 저절로 떨어진 꼭지를 쓰는데 덩굴에서부터 반치 정도 되게 잘라서 그늘에 말려 밀기울과 함께 누렇게 되도록 볶아 쓴다. 瓜蒂의 해독법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⁴⁾.

2. 四象醫學 文獻 검색

1) 『保健省東武遺稿』²⁾

東武遺稿에서는 巴豆, 甘遂, 瓜蒂에 대해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와 「四象人藥材類」에서는 巴豆, 甘遂, 瓜蒂의 性味와 效能에 대해 설명하였다. 巴豆는 熱辛, 除胃寒積, 破癥消痰, 大能通利하여, 脾의 關格을 통하게 하며, 甘遂는

4) 巴豆 去胃中寒積 利水穀道 去皮 油 爲末 入丸散用之 <本草> ○性熱 一云生溫熟寒 味辛有大毒 蕩鍊五藏六府 開通閉塞 利水穀道 破癥瘕 積聚痰癖 留飲 治十種水病 除鬼疰 蠱毒 去惡瘡息肉 墮胎 殺虫魚及斑猫毒 又殺腹藏虫 ○出巴蜀 形似大豆 最能瀉人 新者佳 得火良 ○其中一名江子 顆小似棗核 兩頭尖者 勿用 能殺人 <本草> ○斬關奪門之將 不可輕用 若急治爲水穀道路之劑 去皮心膜油 生用 若緩治爲消堅磨積之劑 換水煮五次 或炒烟盡色紫黑 研用 可以通腸 可以止泄 <湯液> ○凡用去皮及心膜 <本草> ○巴豆毒 人中毒則令大瀉或吐 煩渴發熱 急用黃連 黃栢 煎湯冷服 ○又黑豆 煮取汁飲之 又寒水石 磨水服之 又菖蒲或葛根 搗取汁 飲之 更以冷水浸手足 忌食熱物 <本草> ○又藍根 砂糖 搗爛和水服 <綱目> 甘遂 破積聚 利水穀道 爲末 調飲服 或作丸服 <本草> ○性寒味苦甘有毒 能瀉十二種水疾 治面目浮腫 心腹脹滿 利水穀道 ○去皮肉白 作連珠 實重者良 二月採根陰乾 此藥 專於行水攻決爲用 量用之 <本草> ○此藥 可以通水 而其氣直透達所結處 麩炒用之 <入門> ○甘遂毒 黑豆 煎汁 飲之 <本草> 瓜蒂 痰塞心胸 令人悶絕 用瓜蒂散吐之即甦(方見三法) ○츄외고고리 性寒味苦有毒 主通身浮腫 下水 殺蠱毒 去鼻中息肉 療黃疸 及食諸物過多 病在胸中者 皆吐下之 ○卽話瓜蒂也 一名苦丁香 瓜有青白二種 當用青瓜蒂 七月得瓜熟氣足 其蒂自然落在蔓莖上 約半寸許 採取陰乾 麩炒黃色用 <本草>

苦寒, 破癥消痰, 面浮腫脹, 利水能安하여, 腎의 結胸을 통하게 하며, 瓜蒂는 苦寒, 善能吐痰, 消身浮腫, 并治黃疸한다고 하였다.

「下藥」에서 巴豆는 少陰人의 重한 便秘 치료, 甘遂는 少陽人의 重한 便秘 치료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四臟之痰藥」에서는 脾의 痰藥으로 巴豆, 腎의 痰藥으로 甘遂를 언급하였다.

「病症各論」에서는 다양한 巴豆 사용 병증을 제시하였는데, 關格, 乾霍亂, 濕霍亂에는 1~2개, 腸中硬脹 面色點青하면 1~3개, 脇痛에는 0.5~1개, 中氣昏冒하면서 腸鳴하면 霍亂으로 간주하여 巴豆를 사용하였다.

「傷寒陽證」에서는 少陽人傷寒證 大小便不快, 身熱之證에 甘遂를 사용하였다.

「虛勞症」에서는 甘遂를 浮腫, 脹滿에 사용하였다.

「少陽人痢疾及暑症」에서는 가정 상비약으로 巴豆, 甘遂, 瓜蒂와 더불어 滑石, 木通, 石膏, 桂枝, 麻黃, 人蔘, 官桂, 附子, 輕粉, 芫花, 大黃, 牛黃, 熊膽, 柴胡, 羌活, 蘇葉, 葱白을 제시하였다.

「少陽危症」에서는 諸腫에 설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大小便不通이 重한 경우, 咽喉證이 있을 경우에 甘遂가 들어간 天一丸이나 甘遂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太陰病」에서는 太陰人 中風昏冒에 瓜蒂를 서서 吐하게 한다고 하였다. 용량 및 용법은 2g 정도를 冷水調服하였다.

「關格」에서는 巴豆는 少陰人 關格을, 甘遂는 少陽人 關格을, 瓜蒂는 太陰人 關格을 치료하는 약재라고 하였다⁵⁾.

5) <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 脾藥 巴豆 熱辛 除胃寒積 破癥消痰 大能通利, 巴豆 脾之關格通 ○腎藥 甘遂 苦寒 破癥消痰 面浮腫脹 利水能安, 甘遂 通腎之結胸 ○肺藥 瓜蒂 苦寒 善能吐痰 消身浮腫 并治黃疸 <四象人 藥材類> 少陰人 巴豆 通脾之關格 ○少陽人 甘遂 通腎之結胸 ○太陰人 大黃 通肺之痢便 <下藥> 太陰人 下藥 滾痰丸也 少陰人 下藥 輕則桃仁當歸加大黃也 重則巴豆也 然巴豆大毒 小用如粒如綠豆大次次試而用之 大黃則肺之下藥也 有桃仁當歸 故兼帶用之也 少陽人 下藥 輕則草麻子油黑丑 重則天一丸也 天一丸者 我之自方也 古方無之甘遂末二分五里輕粉末二理五毫 分作二介 或一介 有泄者 或二介 有泄者 又一方 輕粉末二理 甘遂末二分 芫花末一分爲分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³

체질별 運氣病의 치료 약물로 太陰人은 熊膽, 少陽人은 甘遂, 少陰人은 桂皮를 제시하였다. 運氣病의 증상은 太陰人은 5~6일이 지나도 한 쪽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이며, 少陽人은 2일이 지나도 大便이 나오지 않는 경우이며, 少陰人은 7일 안에 人中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이다. 체질별 急症 약물로는 少陰人은 巴豆, 太陰人은 瓜蒂, 少陽人은 石膏를 제시하였다. 이는 少陰人은 乾霍亂으로 얼굴색이 푸르고 위아래로 통하지 않는 경우이며, 太陰人은 말이 고요하고 낮고 胸膜이 막히는 경우이며, 少陽人은 丹毒의 붉은 반점이 몸에 두루 나타나며 煩燥하고 불안한 경우이다⁶⁾.

作二介也 此藥名之曰 少陽截瘧丹 比天一丸 則藥力尤重而藥效尤妙也

<四臟之痰藥> 肺之痰藥 中庸之 則樗根皮大黃也 脾之痰藥 重用之 則巴豆砒礪也 腎之痰藥 重用之 則蘆薈甘遂芫花也

<病症各論> 關格乾霍亂濕霍亂 緊藥則如意丹溫白丸備急丸可也 症輕則生巴豆一介可也 症重則二介也 也也餘則尤用之實難也 …… 中氣昏冒 蘇合元或蒜汁用之 則必甦也 若必甦而有腹鳴症 則乃霍亂也 巴豆藥用之可也 …… 乾霍亂 則巴豆 上藥也

<傷寒陽證> 少陽人傷寒症 大小便不快 身熱之症 與少陰人傷寒 泄瀉多數身冷之症一般 不急治 則似十無一生 輕者 猪苓木通等屬 可以救之 重者 則甘遂芒硝以下水飲 可也 …… 少陽人陽症 大小便不快之前 不可一日前廢 猪苓澤瀉木通滑石之屬 間一日不可廢甘遂芒硝而但甘遂芒硝小小用之 而以不爲大便不通爲度 蓋大便爲重而小便次之

<虛勞症> …… 浮腫脹滿 以甘遂芫花下水

<少陽人 痢疾及暑症> …… 蓋家內 滑石 一斤 木通 一斤 石膏 一斤 桂枝 半斤 麻黃 半斤 人參 官桂 附子 等屬 輕粉 甘遂 芫花 巴豆 大黃 瓜蒂 牛黃 熊膽 柴胡 羌活 蘇葉 蔥白 等屬 不可闕耳

<少陽危症> …… 大小便不通 雖是二症 而大便通 則小便自通也 病輕者 先通小便 四苓散 導赤散 主之 病重者 先通大便 甘遂 芫花 主之

<太陰病> …… 太陰人危症 中風昏冒也 牛黃清心丸 或單 牛黃 或 瓜蒂吐之 …… 全年 金催夏 七月間 腹痛暑症 用 大黃 而不效 用 水瓜藥汁 而不效 數三日後 漸覺有中風之非 精神昏冒 而頭面無汗 心中驚異 急用 瓜蒂 末五分中 冷水調服 則須與大吐食物 具夜即愈 然則太陰人 瓜蒂 不可闕於囊中

<關格> 太陰人關格 瓜蒂, 少陽人關格 甘遂 少陰人關格 巴豆

6) 太陰人 運氣病 五六日 片汗不出則 熊膽 不可不用 少陽人 運氣病 二晝夜 大便不通則 甘遂 不可不用 少陰人 運氣病 七日內 人中不汗則 桂參 不可不用 又 ○少陰人 乾霍亂 面色帶青而 上下不通則 巴豆 不可不用 太陰人 語靜微低而 胸膜阻塞則 瓜蒂 不可不用 少陽人 丹毒紅粒遍體 煩燥而不寧則 石膏 不可不用

3) 『東醫壽世保元甲午本』¹⁴

『東醫壽世保元辛丑本』과 다른 내용은 惡寒의 有無로 巴豆의 用量을 결정하였는데, 腹中硬滿과 함께 惡寒이 있으면 全粒, 惡寒이 없으면 半粒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辛丑本』과는 달리 太陰證에는 반드시 써야 하는 중요한 藥物이지만, 陽明證과 亡陽證은 禁忌이며 太陽證은 간혹 사용한다고 하였다. 大便秘閉한 太陰證에는 獨參附子理中湯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하였다. 巴豆 사용 후 처방 사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한 알을 사용하는 경우는 설사를 한 차례 한 후에 補藥을 투여하며, 반 알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補藥을 써서 억누르는 힘을 키우도록 하였다.

甘遂는 巴豆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少陽人의 甘遂를 少陰人의 巴豆와 비교하면 그 毒은 오히려 가볍지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水入即吐, 心下手不可近, 急咽喉에 매우 잘 듣는 다하여 聖藥이라 하였다. 短氣와 譫語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甘遂와 巴豆는 모두 表裏氣가 지탱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口燥, 心煩, 腹脹, 便閉, 下利青水, 腹痛, 便澀에는 巴豆丹을 투여하라고 하였다.

甘遂는 水逆還吐하는 結胸의 경우에 痰水燥氣가 멎어 있는 곳을 직접 공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汗出短氣하는 結胸과 燥渴譫語하는 結胸은 서서히 水結을 풀어야 하므로 甘遂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傷寒論』에서 사용했던 大陷胸湯, 十棗湯보다 甘遂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瓜蒂에 관해서는 痰涎壅塞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瓜蒂散은 『甲午本』에서는 新定方 포함되지 않았으나 『辛丑本』에서는 新定方에 포함되었다⁷⁾.

7) 少陰人 太陽病 有惡寒證而腹中硬滿者 用巴豆全粒 無惡寒證而腹中硬滿者 用巴豆半粒 ○巴豆 太陰證之要藥也 太陽證或用之者 以腹硬滿之證兼太陰積滯故也 大忌陽明證 若 亡陽者誤用則 危 ○少陰人 食滯下利 …… 當用 獨參附子理中湯 面青白黑多睡之證 尤重證也 大便滑利者 當用 獨參附子理中湯 或加生附子 大便秘閉者 當用 獨參附子理中湯 兼用 巴豆 半粒 或全粒 ○用全粒則 下利 用半粒則 化積 用全粒者 下利一度因用

4) 『東醫壽世保元 辛丑本』³

巴豆는 鬱狂證에서는 外熱包裹冷, 胃家實, 亡陽證에서는 危證, 太陽病厥陰證, 太陰證에서는 痼冷積滯, 乾霍亂關格, 黃疸, 寒實結胸, 瘧, 少陰證에서는 下利靑水, 黑水泄瀉 등 少陰人의 모든 病證에서 사용되었다.

甘遂는 結胸의 가장 심한 상태, 心下痞硬滿, 痺風膝寒 등에 사용되었다. 巴豆에 비해 적음 病證이 비교적 협소하였다. 少陽人의 亡陰證, 胸膈熱證, 陰虛午熱證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瓜蒂는 구체적인 太陰人 病證이 아닌 卒中風의 實證, 痰涎壅塞을 치료한다고 하였다⁸⁾.

5) 『東醫四象新編』¹⁵

『四象經驗』에서 巴豆는 少陰人이 大便秘燥한 경우, 胃家實에 發狂하는 경우, 배가 그득한 黃疸, 熱이 없는 結胸證에 사용한다. 甘遂는 表病의 纏喉風, 一脚不仁痺風, 咽喉 水漿不入, 兩脚膝寒無力 大便不通에 사용한다.

『用藥彙分』에서 제시된 巴豆丹 사용 病證은 中腑二便閉, 中腑中臟, 痞氣, 結胸, 霍亂通治, 積聚通治, 黃疸通治, 便閉, 下死胎이며, 巴豆膏 사용 病證은 潰後이며, 大小甘遂散 사용 病證은

補藥升提其氣 用半粒者 吞下少頃時用補藥壓壯其力 少陽人甘遂藥 與少陰人巴豆藥 比較則 其毒猶輕 然不可輕用 …… 水入即吐 心下手不可近 或急咽喉 用之則聖藥也 短氣與譫語者 必不可用 用之則危 蓋少陽人甘遂藥 與少陰人巴豆藥 可以用之於表裡氣可支之時也 不可用之於表裡氣不可支之時也 ○口燥 心煩 腹脹 便閉 或下利靑水 腹痛 便澀則 當用 巴豆丹 繼之以他藥 ○水逆還吐而結胸者 表裡氣猶壯而 其勢最急 不可不急用 甘遂 直攻痰水燥氣壅結之處所也 汗出短氣而結胸者 當用 柴胡瓜蒌湯 三四服 又連日服 徐徐以解水結而 不可輒用甘遂直攻水結 燥渴譫語而結胸者 當用 柴胡瓜蒌湯合白虎湯 三四服又連日服 徐徐以解水結而 不可輒用甘遂直攻水結

8) 少陰人 病證 外熱包裹冷 而毒氣 中結於內 當用 巴豆丹 下利一二度 ○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始覺汗多亡陽證候 真是危證 ○太陽病 厥陰證 ○腹滿不減 減不足言者 有痼冷積滯 ○直中陰經 乾霍亂關格 ○下利靑水者 欲下之 ○黑水泄瀉 ○發黃 ○寒實結胸 ○腹中 實滿而大便硬 瘧發 ○久瘧 少陽人 病證 ○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 ○飲水水入即吐 心下痞硬滿 乾嘔短氣 ○結胸病 皆藥湯入口 輒還吐 ○痺風膝寒 大便不通 太陰人 病證 ○卒中風病 胸膈 格格有窒塞聲 而目瞪 ○痰涎壅塞

結胸이었으며, 瓜蒂散 사용 病證은 救急으로 제시하였다. 巴豆는 如意丹, 甘遂는 甘遂天一丸, 贊化丹의 구성 약물로도 사용되었다.

『四象方劑』에서 巴豆丹은 대변을 통하게 하는데, 용법은 巴豆 1粒을 껍질을 벗겨 따뜻한 물에 삼키거나, 익히거나 구워서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 巴豆膏는 巴豆의 껍질을 벗긴 후 연기가 날 정도로 볶아 부드럽게 갈아서 膏藥처럼 갈아서 헌데에 붙이는데, 모든 부스럼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甘遂散은 5분을 사용하면 大甘遂散이라 하여 大結胸을 치료하며, 3분을 사용하면 小甘遂散이라 하여 小結胸을 치료한다.

瓜蒂散은 卒中風 胸膈格格有窒塞聲 目瞪에 사용하는데 瓜蒂를 炒黃해서 가루로 만든 후 3~5분을 따뜻한 물에 삼키거나 1錢을 끓여서 복용하라고 하였다⁹⁾.

6) 『普濟演說』¹⁶

『普濟演說』에서 太陰人의 泄瀉藥으로는 大黃, 少陰人 泄瀉藥으로는 巴豆如意丹, 少陽人 泄瀉藥으로는 甘遂와 黑丑을 제시하면서 쉽게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자주 복용해서 안 되는 藥으로 人參, 鹿茸을 제시하였으며, 가볍게 복용해서 안 되는 藥으로 水銀, 巴豆, 瓜蒂를 제시하였다.

怪疾 치료약으로 少陰人은 蘇合丸, 二香散 등을 사용하며, 太陰人은 麝香이나 熊膽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麝香이나 熊膽 대신 瓜蒂를 사용하기도 하나 3分 이하로 사용하라고 용량을 제시하였다. 瓜蒂의 適應症으로 太陽關格, 竟中

9) <四象經驗> 少陰人 大便秘燥者 巴豆下之, 少陰人 胃家實 發狂證 先用巴豆全粒 後用獨參八物君子湯 以壓之 ○少陰人 傷寒七八日 身黃如梔子色 腹滿發黃 用茵陳橘皮湯 瘧疽丸 或巴豆丹 ○少陰人 結胸無熱證 用半夏桂枝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 或巴豆丹 ○少陽人 表病 用甘遂 裏病 用石膏 ○纏喉風, 一脚不仁痺風, 咽喉 水漿不入, 兩脚膝寒無力 大便不通 <四象方劑> ○瓜蒂散 治卒中風 胸膈格格有窒塞聲 及目瞪者 必用 瓜蒂 炒黃爲末 三五分 溫水吞下 或有一錢急煎用 ○巴豆丹 通利大便 巴豆 一粒 去殼 溫水吞下 若熱灸 名 溫化丹 亦治大便秘 ○巴豆膏 治諸瘡 巴豆 多少 去殼炒烟斷 研爲膏付之 ○大甘遂散 治大結胸 甘遂末 五分 若甘遂三分 名 小甘遂散 治小結胸

風을 제시하였다.

應用 處方에 관한 설명에서 瓜蒂散은 『東醫壽世保元』과 동일하며, 甘遂散 용량은 大結胸은 5分, 小結胸은 3分을 제시하였다. 巴豆丹에 대해서는 全粒은 下痢시키며 半粒은 化積시킨다고 하면서 適應症으로 水結胸을 제시하였다¹⁰⁾.

3. 성분 및 약리

1) 巴豆

巴豆의 성분은 resin, ester 등이 함유된 croton oil (巴豆油)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그 밖에 crotonic acid(巴豆油酸), crotin(巴豆毒素), crotonoside, carcinogen인 phorbol이 있다. crotonic acid는 소화관에서 분해되어 glycerin과 tiglic acid(巴豆酸)로 분해된다.

巴豆油 구강 섭취시 체내에서는 구강염, 인후염, 위장염, 구토, 복통, 설사, 탈수, 腸腐蝕, 장출혈, 腸嵌頓, 점액성 혈변, 백혈구 증가, 발열, 단백뇨, 혈뇨, 저혈압, 저체온, 脈細弱數, 호흡곤란, 쇼크, 급성신부전, 간종대, 황달 등이 일어난다. 巴豆油, 巴豆霜 또는 巴豆 蒸氣의 피부 접촉시에는 피부염, 紅疹, 작열감, 소양감, 水腫, 水疱, 膿疱, 流淚, 결막염, 비점막염, 乳頭腫 등이 나타난다. 피하주사는 붓와직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은 110℃로 가열시 소실된다.

사람에 대한 croton oil의 치사량은 경구 복용시 1g정도인 20방울이며, crotin의 토끼 LD₅₀은 피하투여시 50-80mg/kg, crotonic acid의 mouse LD₅₀은 경구 투여시 3.37mg/1마리, crotonic acid의 rat LD₅₀은 1g/kg, crotonic acid의 guinea pig 피하주사 LD₅₀은 600mg/kg이다.

巴豆의 內服 中毒의 해독은 大豆, 芭蕉葉, 綠豆, 黃連, 黃柏, 菖蒲, 寒水石 등을 활용하며, 피부나 눈의 해독시에는 주로 黃連을 끓여 활용한다.

다. 주사제는 쇼크의 初期에는 atropine, noradrenalin, aramine을, 中期나 後期에는 dopamine, phentolamine, isoproterenol, atropine 등을 응용한다.

중독의 예방을 위해서는 croton oil의 제거를 위해 壓去油한 巴豆霜을 사용하거나, crotin의 제거를 위해 蒸한 후 神麩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巴豆霜의 일반적 용량은 1회 0.2g, 1일 0.5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구강, 식도, 위점막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 capsule에 넣어 복용하기도 한다. 巴豆 修治시에는 巴豆 蒸氣나 巴豆霜이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설비, 안면마스크, 고무장갑, 바세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8,17,18}.

2) 甘遂

甘遂의 성분으로는 euphorbon, kanzuol, α-euphorbol, β-euphorbol, euphadienol, euphol, tirucalol, kansuinine A, kansuinine B 등이 있다.

甘遂는 구강 투여시 瀉下作用, 利尿作用, 抗生育작용이 있으며, 흉강액 저류, 종류, 소변불통, 정신분열증, 결핵성삼출성흉막염, 인공임신중절, 폐양성 천공 및 담도질환 등의 복부 외과 급성 질환, 위절제술후 통변, 백일해, 빈뇨, 다형홍반 등에 사용한다.

甘遂의 50% 에탄올 추출물 LD₅₀은 mouse에 복강주사시 18.459±0.369g/kg이다. 甘遂 추출시 甘草와 함께 넣어 추출하거나, 각각의 추출물을 혼합할 경우에는 毒性은 증강된다.

瀉下作用의 효과는 구운 것보다는 生用시에 더 강력하다. 에틸 알코올로 추출한 후의 찌꺼기나 甘遂의 煎劑는 瀉下作用이 없다. 즉 瀉下作用의 유효성분은 에틸 알코올 추출물의 resin으로 추정된다. 甘遂의 탕전시 1회 복용량은 0.5~1錢이나 약제의 修治法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8,17}.

3) 瓜蒂

瓜蒂의 성분으로는 cucurbitacin B, elaterin으로 도 부르는 cucurbitacin E, melotoxin이 있다.

瓜蒂의 구강 투여시에는 간보호, 세포면역 증강,

10) 太陰人下藥 大黃三四錢可也, 少陰人下藥 巴豆如意丹也, 少陽人下藥 甘遂 黑丑 然不宜容易服之. 麥茸不可屢服 水銀 巴豆 瓜蒂 不可輕用也
甘遂散 甘遂末 單服 此方 治結胸 大結胸服五分 小結胸則服三分
巴豆丹 巴豆 一粒 去殼取粒 溫水吞下 全粒 或半粒 此方 全粒下利 半粒化積 亦治水結胸

항암, 구토 유발, 혈압 강하, 심장 수축 억제, 장의 유동 운동 증강 등의 효능이 있어 급성 황달형 독성 간염, 급성 황달형 전염성 간염, 만성 간염, 원발성 간암, 만성 비염 등에 사용한다.

Melotoxin은 0.02g/kg을 개에게 경구투여하면 구토, 호흡중추 마비가 사망한다. 2.5mg/kg을 토끼에게 정맥주사할 경우에도 사망한다. cucurbitacin B의 mouse 경구투여 LD₅₀은 14±3mg/kg이다.

急性肝炎 치료를 위한 瓜蒂散의 투여방법은 瓜蒂를 炒黃하여 散劑로 만든 후 아침 공복시에 0.02g씩 코로 흡입한다. 20회를 치료기간으로 한다. 흡입시에는 엎드리거나 모로 눕거나 앉는다. 부작용으로 비점막 건조와 소량의 코피가 보고되었다^{8,17}.

IV. 考 察

四象醫學 발명 이전의 문헌 중에서 『東醫壽世保元』의 약물 활용에 기여한 문헌은 「醫源論」에서 언급한 본초서적과 『傷寒論』 『東醫寶鑑』 등이 있다. 이러한 서적을 참고로 이제마는 사상 의학의 본초 개념과 용법, 주치증 등을 정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神農本草經』은 6세기경 陶弘景에 의해 정리된 서적으로 그는 원문에 注를 추가되어 『神農本草經集注』로 출판하였다. 『神農本草經』에서 巴豆와 甘遂는 下藥으로 분류하였으며, 瓜蒂는 中藥으로 분류하였다. 上藥은 君藥으로 주로 사용되며, 수명을 연장시키고, 天地人 중 天에 해당되고, 毒이 없으며, 오래 복용하여도 사람을 傷하게 하지 않으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도우며,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한다. 中藥은 臣藥으로 주로 사용되며, 性을 기르고, 天地人 중 人에 해당되고, 毒이 없거나 있더라도 세지 않고, 병을 예방하고, 虛한 상태를 보충한다. 下藥은 佐藥이나 使藥으로 주로 사용되며, 病을 치료하며, 天地人 중 地에 해당되며, 毒이 강하고, 오랫동안 복용하기 어려우며, 寒邪와 熱邪를 제거하며, 積聚를 뚫는 작용이 있다. 다양한 분류 근거 중에서 巴豆, 甘遂는 毒性이 비교적 강하므로 下藥

으로, 瓜蒂는 毒性이 비교적 약하므로 中藥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헌에 나타난 巴豆, 甘遂, 瓜蒂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작용기전은 巴豆와 甘遂는 瀉下作用이 위주이며, 瓜蒂는 催吐作用이 위주가 된다. 巴豆는 熱性이며 주치 부위가 下腹部이며, 甘遂는 寒性이며 주치 부위가 胸部이다. 이는 少陰人 藥物인 巴豆는 少陰人 偏大之臟인 腎이 위치한 下腹部에 작용하며, 少陽人 藥物인 甘遂는 偏大之臟인 脾가 위치한 胸部에 작용한다는 四象醫學 初期의 病理 인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치료 대상인 病理的인 물질은 巴豆와 甘遂가 宿食, 積聚인데 반해 瓜蒂는 痰飲이다. 宿食, 積聚는 水穀之氣 대사의 부산물이며, 痰飲은 氣液之氣 대사의 부산물로 巴豆와 甘遂는 瀉下 작용을 통해 水穀之氣 대사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藥物이며, 瓜蒂는 催吐 작용을 통해 氣液之氣 대사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藥物임을 알 수 있다. 즉 巴豆와 甘遂의 泄瀉는 水穀之氣 대사의 불균형이 교정되는 증상이며, 瓜蒂의 嘔吐는 氣液之氣 대사의 불균형이 교정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藥物의 修治를 보면 巴豆는 기름을 제거하거나 熱을 가하는 것이며, 甘遂는 부산물을 加味하는 것이다. 巴豆의 기름 제거는 毒性이 강한 croton oil의 일시적인 과량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熱을 가하는 것은 단백질인 crocin의 毒性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甘遂는 巴豆에 비해 毒性이 강하지는 않으므로 밀기울 등의 부산물을 섞음으로써 복용량이 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巴豆의 사용 시기에 대해 秦漢時代에는 巴豆를 이용한 치법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巴豆가 사용된 여섯개의 처방의 발명자로 溫白元은 龔信, 瘰癧丸은 危亦林, 三稜消積丸은 李杲, 秘方化滯丸은 朱震亨, 三物白散과 如意丹은 李梴을 언급하였다³. 그러나 三物白散이 『傷寒論』에서 寒實結胸에 사용된 것으로 볼 때 『東醫壽世保元』의 언급대로 秦漢時代에는 巴豆를 이용한 治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大黃에 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豆의 사용경험이 적으므로 바豆로 관리해야 할 病證을 大黃으로 관리하여 少陰人의 경우에는 본의 아닌 誤治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에서 三物白散의 발명자로 李梴을 언급한 것은 『東醫寶鑑』에서 三物白散의 출전을 入門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李濟馬의 著書에 나타난 약물들의 활용을 살펴 보면, 『東武遺稿』에서는 약물들의 구체적 사용 病證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바豆는 少陰人의 關格, 寒積, 霍亂, 便秘 등을 치료하며, 甘遂는 少陽人의 關格, 便秘, 浮腫에 사용하며, 瓜蒂는 中風昏冒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바豆, 甘遂, 瓜蒂를 關格을 치료하는 공통된 藥材로 인식하였다. 각 약물의 구체적인 작용 기전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체질별로 구분된 藥物의 效能의 서술에서 少陰人은 脾, 少陽人은 腎, 太陰人은 肺를 넣은 것은 東武遺稿 약물 활용의 기본이 체질별 偏小之臟과 偏大之臟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 草本卷』에서는 바豆, 甘遂, 瓜蒂를 체질별 運氣病 또는 急症에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하여 關格이나 救急질환에 사용한다는 개념이 나타나 있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는 약물의 적응증에서 체질병증을 언급하였다. 바豆는 太陰證에 사용하며 陽明證과 亡陽證은 禁忌라 하였으며, 甘遂는 結胸證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瓜蒂는 체질병증이 아닌 증상인 痰涎壅塞을 제시하여 瓜蒂는 완전한 체질병증의 개선약물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甲午本』의 공로는 이전 문헌에 나타난 효능 및 적응증을 정리하여 사상의학적 적응병증을 언급한 것이지만 『辛丑本』에 비해서는 病證藥理가 치밀하지는 못하였다.

바豆, 甘遂, 瓜蒂의 四象醫學的 적응 病證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완성되었다. 바豆는 表病과 裏病을 막론하고 大腸局의 陰寒寒氣 항진된 病證에 사용하며, 甘遂는 少陽人의 水液 阻滯 病證인 結胸證, 瓜蒂는 太陰人의 氣液之氣의 순환장애로 인한 卒中風 痰涎壅塞 實證이다.

즉 단순한 증상의 개선이 아닌 체질별 寒熱虛實의 균형을 조절하는 약재로 발전시킨 것이다.

사상의학 문헌 중 『東醫四象新編』에서는 바豆를 瀆後에도 활용하여 체질 병리 외에도 外用藥으로도 활용하였으며, 『普濟演說』에서는 바豆의 적응증으로 水結胸을 언급하였다.

세 약물의 성분을 보면 바豆가 독성이 가장 강하며, 瓜蒂가 독성이 가장 약하다. 적절한 修治와 적절한 용량이 올바른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들 약물의 劑型은 散劑 형태나 에탄올 추출후 가공해야 적절한 효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사상의학과 관련된 문헌에서 바豆, 甘遂, 瓜蒂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바豆, 甘遂, 瓜蒂의 공통점은 체질별 關格을 치료하며, 有毒하며, 救急證에 사용되며, 單味로 사용되며, 散劑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2. 바豆와 甘遂는 水穀之氣 病證에 적용되며, 瓜蒂는 氣液之氣 病證에 적용된다.
3. 바豆와 甘遂의 泄瀉는 水穀之氣 대사의 불균형이 교정되는 症狀이며, 瓜蒂의 嘔吐는 氣液之氣 대사의 불균형이 교정되는 症狀이다.

이상으로 볼 때 용량 및 용법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바豆, 甘遂, 瓜蒂는 체질 불균형으로 초래된 救急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VI. 參考文獻

1. 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본초학. 영림사, 서울, 2006:294, 295, 300, 301, 699, 700.
2. 량병무, 차광석 역. 이제마 지. 東武遺稿, 국역 한의학대계 15권. 해동의학사, 서울, 1999:36-37, 60, 79, 149, 153, 157, 172-173, 179, 183, 190, 195-196, 207, 216, 217, 219.

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 교실.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6:650-720.
4. 김인섭. 파두를 이용한 급성 마비성 장폐색 환자의 치험 2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3;14(1):82-91.
5. 사부일. 파두의 독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약응용학회지. 2003;3(1):49-62.
6. 유창길, 권기록, 유병길. 파두약침의 급성 아급성 독성실험 및 Sarcoma-180 항암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약침학회지. 2002;5(1):27-42.
7. 박완수, 김형환, 안덕균, 최호섭. 파두가 흰쥐 흉부대동맥 혈관수축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2;17(2):164-174.
8. 김창민, 신민교, 이경순, 안덕균 역. 강소신의 학원 편. 중약대사전. 상해과학출판사, 상해. 정답, 서울, 1998:77-83, 427-431, 5772-5780.
9. 馬繼興 主編. 陶弘景 著. 神農本草經輯注.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5:2, 4, 5, 294, 350, 383.
10. 왕호고 편저. 탕액본초. 의성당, 서울, 1994: 100-101, 152, 165.
11. 채인식. 상한론역전. 고문사, 서울, 1991:106, 112, 120.
12. 동의보감국역위원회 譯. 허준 著. 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1999:296, 943, 944, 1544, 1545, 1900, 1952, 1983-4.
13. 박성식 역. 이제마 저.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 권. 집문당, 서울, 2003:252.
14. 김달래 역. 동의수세보원갑오구본. 목과도, 서울, 2002:57, 60, 76, 126, 134, 136.
15. 권영재 역. 원덕필 저. 동의사상신편, 국역 한의학대계 13권. 해동의학사, 서울, 1999:48, 54, 59, 66, 67, 74, 77, 78, 80, 81, 82, 94, 95, 97, 100, 104, 109, 110, 115, 116, 122, 123, 140, 149, 150, 161, 166, 203, 249, 277, 313, 314.
16. 김달래 역. 동의수세보원보편. 대성의학사, 서울, 2002:14, 18, 144, 156, 218.
17. 楊倉良. 毒藥本草.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3:488-495.
18. 楊倉良, 程方, 高滌紋, 李遇春, 潘志强, 鄭吉民. 毒劇中藥古今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3:62-69.